

장수군 산림과 최석원 팀장, 농학박사 학위 취득

장수군 산림과 최석원 팀장이 최근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산림 분야에서의 연구와 실무 경험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이번 학위 취득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열정의 결실로 평가된다.



25일 군에 따르면 최 팀장은 다년간 산림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오며 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산림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산림기술사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은퇴자, 농·임업인들의 산림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료 재능기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 팀장의 깊은 지식과 실력은 많은 예비 산림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석원 팀장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배움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와 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시 도봉동, 취약계층 무료 세탁 봉사 진행

남원시 도봉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난 24일,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은웅) 이동세탁 차량을 지원받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세탁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는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용행정 가정방문과 남원시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개인봉사자들의 의뢰로 발굴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세탁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생적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금동,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 체결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병래)는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동빨래방 ‘세탁 나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세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종합복지관의 이동 빨래차가 도움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이 가능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협약을 양 기관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며 각 기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제1차 지사협 회의

남원시 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21일, 2025년도 제1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관내 주민들의 복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 친화적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와 마을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계에서 전달되는 지정기탁금 활용을 위한 저소득 가구 파악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또한 꾸준히 추진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아낌없이 지원해주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AI활용 드론전문강사 양성 과정’ 개강식

남원 여성새일센터, 평생학습관서 방과 후 강사 취업 희망 미취업 여성 20명 대상

남원시 여성새일일가센터는 25일, 남원시평생학습관에서 방과 후 강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AI활용 드론전문강사 양성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구직자의 전문기술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와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3.25(화)~5.30(금)까지 총 180시간 진행되며, COS 코딩 자격증 취득은 물론 드론 군집비행, 엔트리 블록코딩, 디지털튜터 등의 방과후 강사 양성 교육을 진행,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국비 직업교육은 △정리수납 코칭 매니저 창업 과정(4.1~6.26) △사회복지 행정 실무 마스터 과정(4.8~6.26) △맞춤형 노인돌봄 전문가 과정(5.12~7.15)으로 현재 추가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620-5280~5)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이이영 여성다문화팀장은 “앞으로도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제8회 ‘김제 미래발전 경영인 포럼’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5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제8회 ‘김제 미래발전 경영인 포럼’을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경영인 포럼은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관내 경영인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해 이번이 8회를 맞이했으며, 관내 기업대표 및 금융기관 지점장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초청 강사는 과수종 리엔경제연구소장으로 ‘트럼프 경제정책의 결과 속’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에서 과 소장은 현재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트럼프 경제정책의 결과로 보이는 효과와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적 전망과 중소기업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강연하

며 관내 경영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인 포럼은 매회 경제전문가의 특강을 제공해 경영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영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김제

상공회의소의 오랜 열원이었던 김제상공회의소 단독설립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시는 김제시의 설립 발기인회와 발맞추어 김제상공회의소 분할설립을 위한 막바지 설립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김제상공회의소는 오는 6월 공식 출범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시민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민생경제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김제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장애인복지관-장애인부모회, 인식개선 교육·일자리 협력 맞손

정읍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과 장애인부모회(회장 정인승 이하 부모회)가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일자리 연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24일 복지관(이하 복지관)과 부모회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공동 운영과 장애인 일자리 직무개발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공동 기획·운영 △공영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협력 △직무향상교육 상호협력 △장애인 일자리 직무개발·연계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초·중·고 12개교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공영형 방식(이론 강의와 오키나와 공연)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 대상 인식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정인승 회장은 “장애인과 부모의 생생한 경험이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안봉태 백두산업개발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 관계자는 25일, 안봉태 (유)백두산업개발 대표와 김명자 내외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하며 2023년 500만원 기부에 이어 ‘누적 1,000만원’ 기부를 달성해 남원 사랑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남원 주생면 유매마을 출신 안 대표는 자수성가하여 현재 곡성에서 석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외에도 모교인 주생초등학교 발전기금 기부, 주생면 농악단 발전기금 기부(100만원), 유매마을 어르신들의 마을축제 조성 등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안 대표는 “나이를 먹을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 내 고향 남원이 많이 발전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드림스타트, 아동협의회 실무워킹그룹 회의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25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제1차 아동복지기관협의회(이하 협의체) 실무워킹그룹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 서비스 연계·조정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동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기구로, 회의 안건별로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각 분야의 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원시정신건강증진센터,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시여성가족과 아동학대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관내 아동복지기관 실무자가 직접 참석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무주읍, ‘착한가게’ 7곳 탄생

무주군은 무주읍에 소재한 업체 7곳이 ‘착한가게’로 이름을 알렸다. 착한가게는 기부문화 확산과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매출의 일부(월 3만 원 이상)를 기부해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곳으로,

무주군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진성, 김상운)는 25일 △무주열쇠천막전업(대표 김진성)과 △백다방(대표 유태선) △신룡치킨 무주점(대표 김순선) △윙컴에드(대표 임신태) △한일관(대표 한규석) △현대대광(대표 김명진) △희망재가복지센터(대표 박희원)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김상운 공공위원장(무주읍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솔선수범하는 착한가게로 인해 무주읍 지역사회 분위기 또한 훈훈해지길 바란다”라며 “착한가게를 중심으로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사업 활성화에 주력해 더불어 행복한 무주읍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 지역 내 ‘착한가게’는 모두 65곳으로 이중 무주읍에는 25개 업체가 동참하고 있다. ‘착한가게’에는 현판과 연발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모아진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협은행 전북, 무주적상초서 ‘NH그린액션 6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지난 24일 무주적상초등학교에서 기후행동실천에 동참하는 ‘NH그린액션 6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김범석 지부장, 무주적상초 허윤종 교장, 세이브더칠드런 김동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학교에 친환경 안전우산을 전달했다.

NH그린액션은 환경문제 및 탄소배출에 대한 이해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 등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무주적상초 학생들은 폐플라스틱을 교실 내 수거함에 분리배출하고 이것을 양말과 공용안전우산으로 업사이클링 해봄으로써, 자원의 재활용과 탄소중립 실천을 경험했다.

또한 손편지와 함께 업사이클링된 양말 100세트를 무주관내 노인복지관에 전달해 나눔의 행복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김범석 지부장은 “NH그린액션을 통해 아이들이 기후우기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환경지킴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덕유산 유아숲체험원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3월 19일부터 12월 18일(9개월)까지 덕유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전문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가 함께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숲해설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과 직접적인 숲체험 및 산림휴양을 통해 아이들과 어른들의 정서적 안정을 취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더욱 풍부하게 숲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숲해설과 유아숲 운영은 관내지역(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에 속하는 초·중·고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대상이며, 학부모와 성인들에 대한 맞춤형 해설도 진행된다.

이성호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덕유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진행되는 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이 숲체험의 즐거움을 느끼고 숲의 소중함을 배우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다.”아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연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